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1.(수) / (총 20매)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050
	담 당 자	전 은 정		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887명(해외유입 560명*(외국인 46명))이며, 이 중 5,56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1명이고, 격리해제는 159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 31.(화) 0시 기준	410,564	9,786	5,408	4,216	162	16,892	383,886
4. 1.(수) 0시 기준	421,547	9,887	5,567	4,155	165	16,585	395,075
변동	10,983	101	159	-61	3	-307	11,189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4.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4,155	357	32	2,519	50	10	18	18	34	322	14	21	40	7	9	441	33	6	224
격리해제	5,567	117	87	4,070	19	14	18	20	12	171	23	23	91	7	3	822	67	3	0
사망	165	0	3	115	0	0	0	1	0	6	1	0	0	0	0	39	0	0	0
합계*	9,887	474	122	6,704	69	24	36	39	46	499	38	44	131	14	12	1,302	100	9	224
(전일대비)	(101)	(24)	(3)	(20)	(5)	(4)	-	-	-	(23)	(2)	-	(3)	(1)	(3)	(2)	(4)	-	(7)

※ 3월 31일 0시부터 4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3.5%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8%이다.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 유입 관련			
서울	474	127	310	7	228	37	38	37	24	구로구 콜센터 관련(97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 성결교회 관련(35명) 등
부산	122	12	80	12	50	18	0	30	3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대구	6,704	5	5,961	4,477	563	918	3	738	20	제이미주병원 관련(135명), 한사랑 요양병원 관련(121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4명) 등
인천	69	25	40	2	31	4	3	4	5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광주	24	6	15	9	0	3	3	3	4	
대전	36	6	21	2	11	8	0	9	0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울산	39	8	24	16	1	4	3	7	0	
세종	46	3	42	1	38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경기	499	96	359	29	251	61	18	44	23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등
강원	38	7	23	17	5	1	0	8	2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등
충북	44	4	31	5	11	13	2	9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충남	131	8	114	0	112	2	0	9	3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등
전북	14	6	1	1	0	0	0	7	1	
전남	12	4	6	1	2	2	1	2	3	만민중앙교회(2명)
경북	1,302	5	1,164	559	411	193	1	133	2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상주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46명) 등
경남	100	9	72	32	35	5	0	19	4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등
제주	9	5	0	0	0	0	0	4	0	
검역	224	224	0	0	0	0	0	0	7	
합계	9,887	560 (5.7)	8,260 (83.5)	5,171 (52.3)	1,745 (17.6)	1,272 (12.9)	72 (0.7)	1,067 (10.8)	101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환자 5명(사망 1명), 직원 6명, 환자 가족 2명

- 서울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환자 1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환자는 3월 25~26일 의정부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는 자가격리 조치 하였으며, 입원 중인 43명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예정이다.

- 서울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는 전일 대비 8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대구에서는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사랑요양병원)에서 전일 대비 11명의 추가로 확진되었으며, 달성군 소재 2개 의료기관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 대실요양병원 3명, 제이미주병원 1명

- 또한 병원 근무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과정에서 중구 소재 의료기관(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신병원)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되었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1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해외유입 35.0%, 병원/요양원 34.9%, 기타 집단발생 6.3%, 조사 중 6.6%으로 확인되었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4.1.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6	0	4	14	17	1	7	29	33	3
누계	560	17 (3.0%)	64 (11.4%)	298 (53.2%)	178 (31.8%)	3 (0.5%)	224 (40.0%)	336 (60.0%)	514 (91.8%)	46 (8.2%)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 3월 22일부터 일별 입국자 수가 1만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단순방문 목적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인 14일간 시설격리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13~19) 약 90만명 → (23~9) 약 60만명 → (32~8) 약 11만명 → (323~29) 약 55만명

-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며, 자차를 이용하거나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가족 또는 동거인도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고, 환기를 자주 시키고,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야 한다(별첨 4).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
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3.22.~4.5.) 우리 국민의 ‘감염병 예방행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위기 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사회의 연대의식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출처>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3차 조사(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pm 3.1\%$) 한국리서치('20.3.2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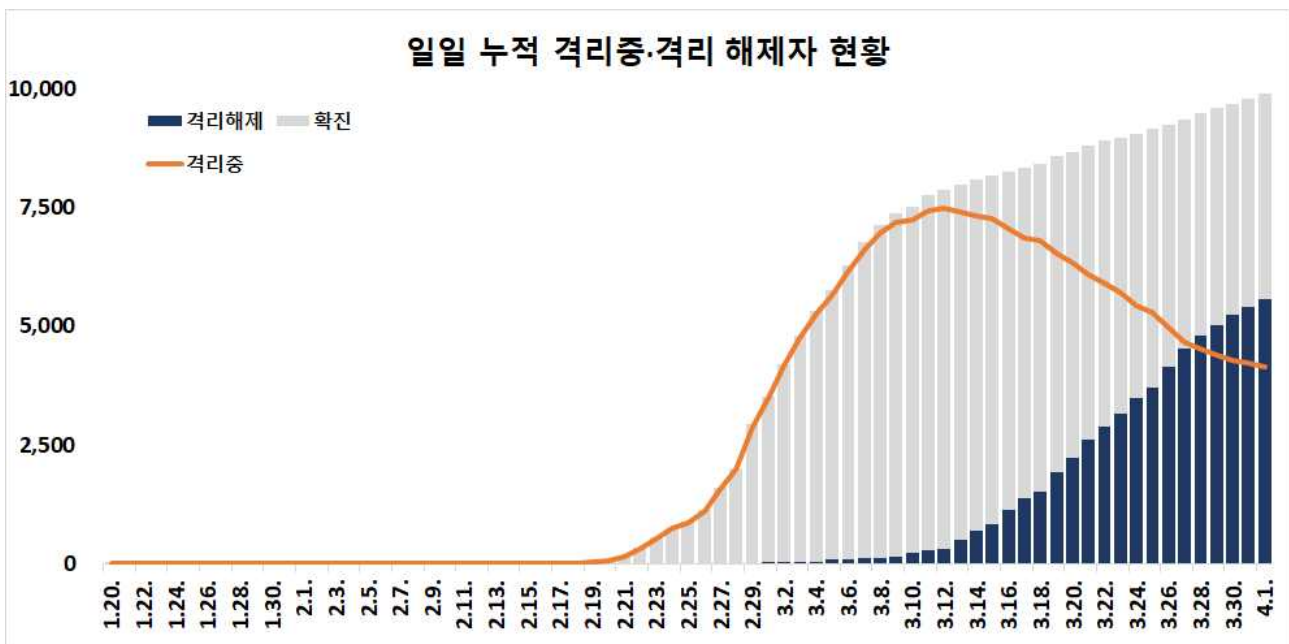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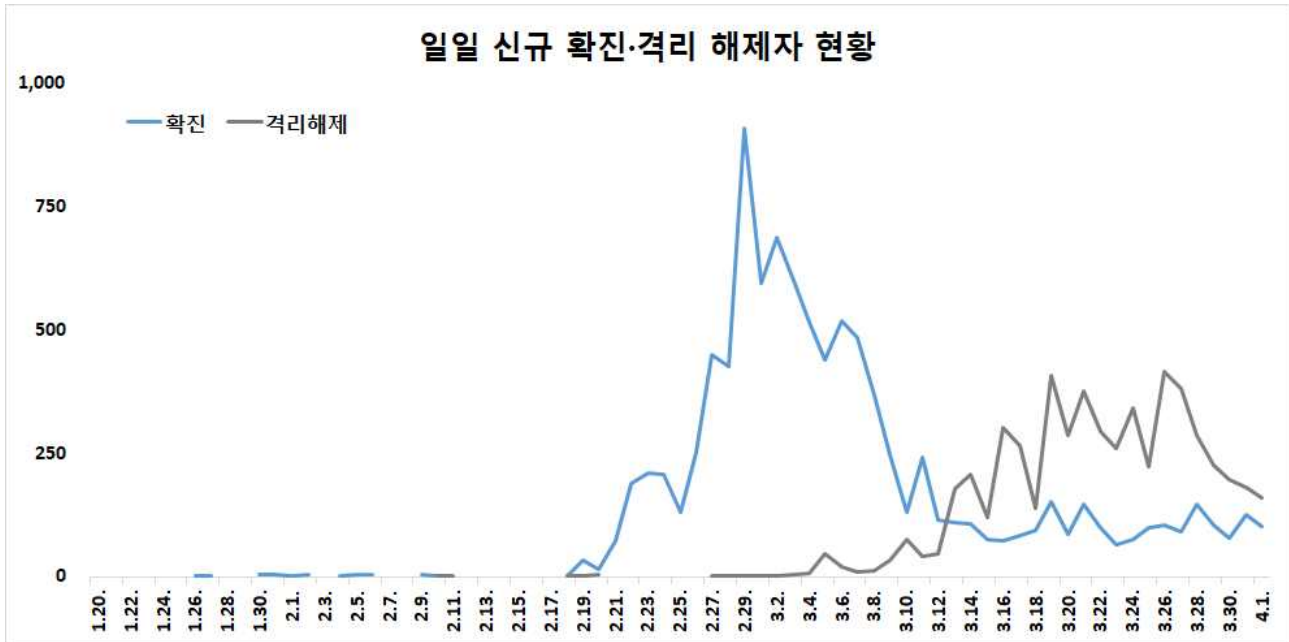
-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실천 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 응답자들의 96%가 ‘외출을 자제했다’고 답했고, ‘도서관, 카페 등 다중시설 출입 자제(95%)’, ‘모임·종교행사 불참(92.9%)’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실천하였고,
 - ‘사람을 대면하는 수준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응답자도 69.9%로 나타났다.
- 한편, “코로나19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조언을 듣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0.5%가 ‘있다’고 응답(없다 19.5%)하였고,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고립될 때 연락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90.5%로 확인(없다 9.5%)됐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 소외감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나부터’ 손을 뻗어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다면, 개개인의 위기극복을 돕고 우리사회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조사(3차)
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8.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0.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1. 마스크 착용방법 홍보자료
1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3.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붙임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확진자 일별 추세 (4.1일 0시 기준, 9,8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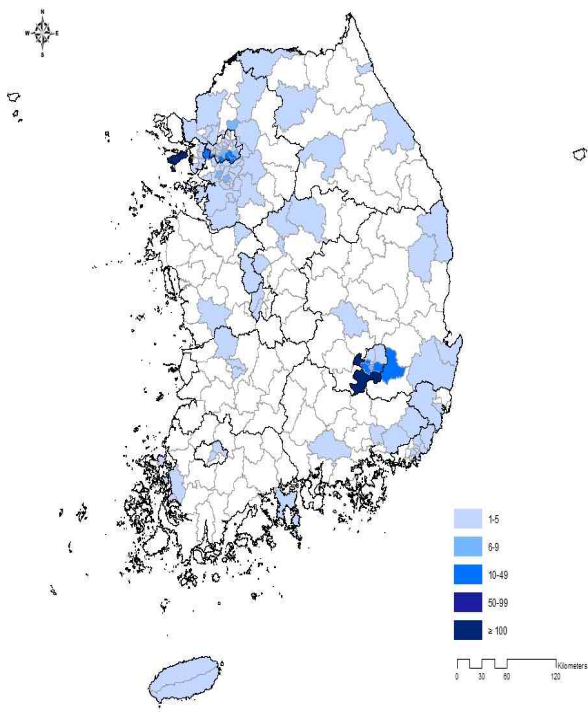
2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4.1일 0시 기준, 9,887명)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474	(4.79)	4.87	경기	499	(5.05)	3.77
부산	122	(1.23)	3.58	강원	38	(0.38)	2.47
대구	6,704	(67.81)	275.15	충북	44	(0.45)	2.75
인천	69	(0.70)	2.33	충남	131	(1.32)	6.17
광주	24	(0.24)	1.65	전북	14	(0.14)	0.77
대전	36	(0.36)	2.44	전남	12	(0.12)	0.64
울산	39	(0.39)	3.40	경북	1,302	(13.17)	48.90
세종	46	(0.47)	13.44	경남	100	(1.01)	2.98
검역	224	(2.27)	-	제주	9	(0.09)	1.34
총합계					9,887	(100)	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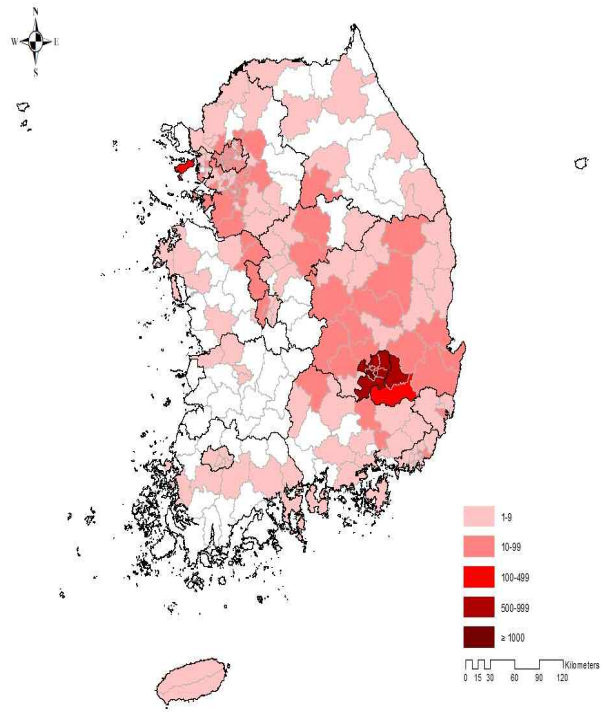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단위)

최근 1주 확진자 현황
(‘20.3.25.~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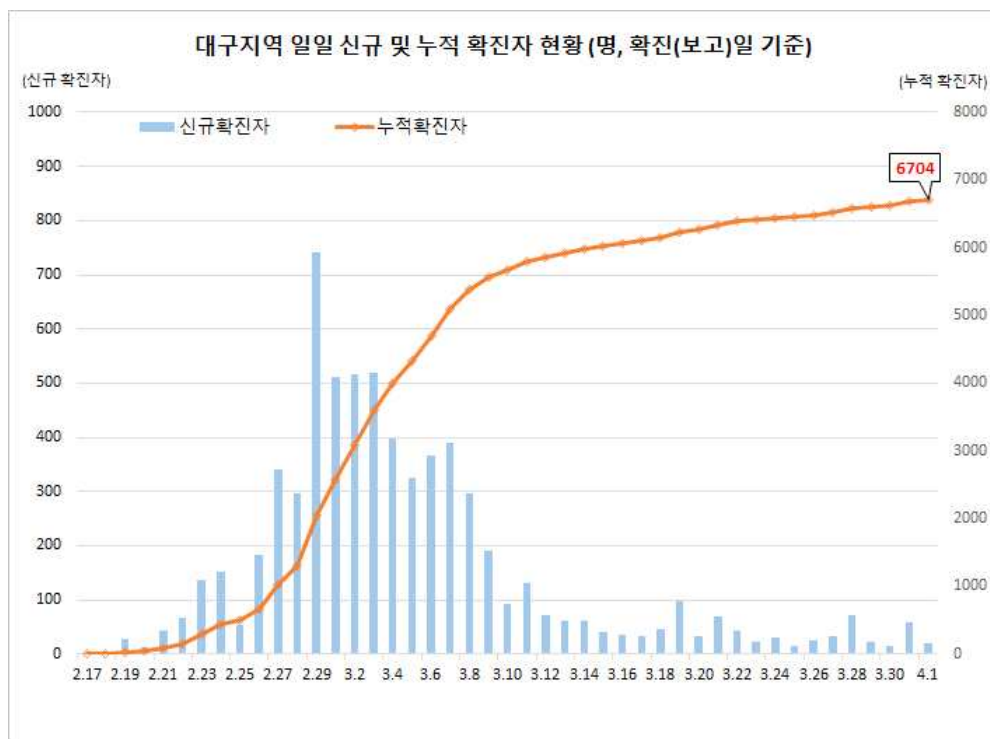


누적 확진자 현황
(‘20.1.1.~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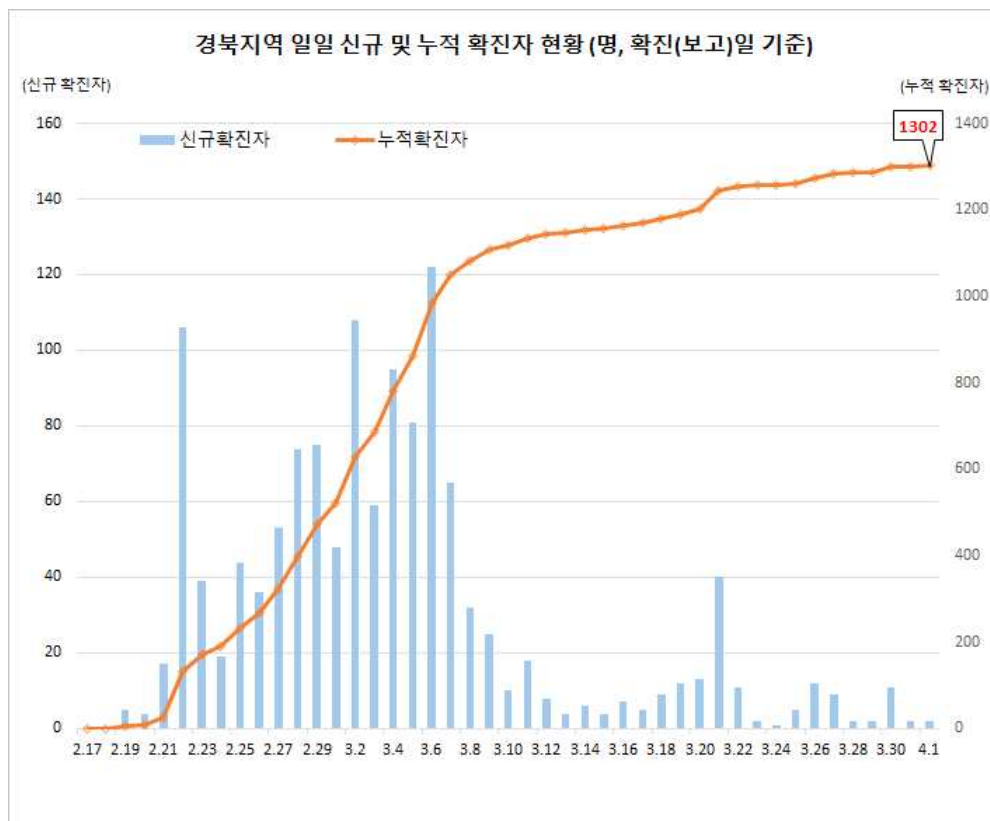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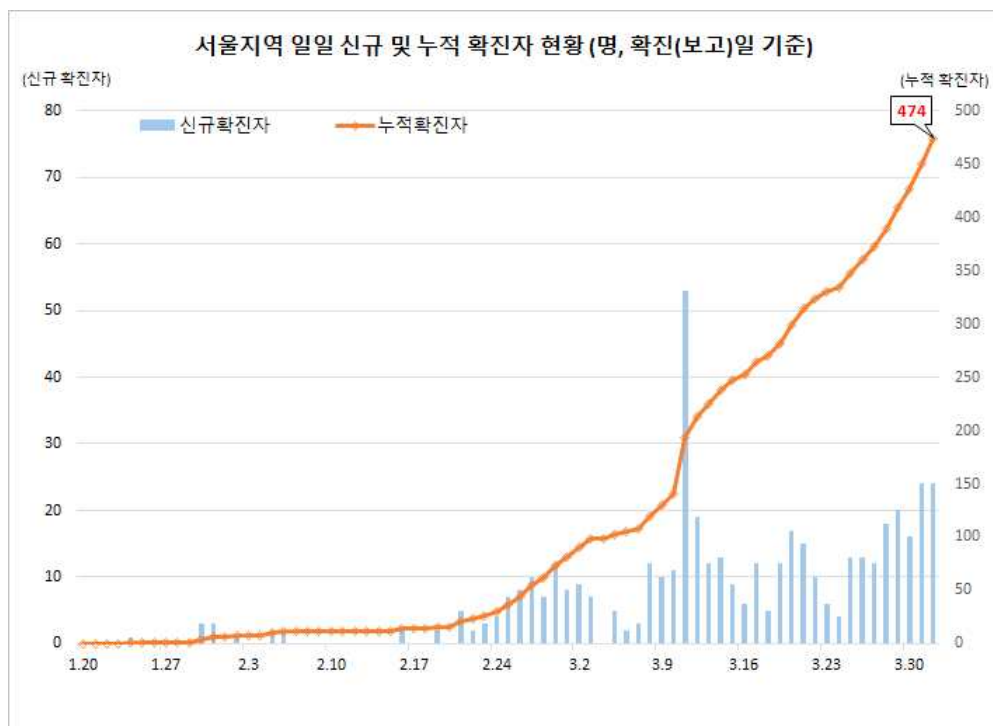


경북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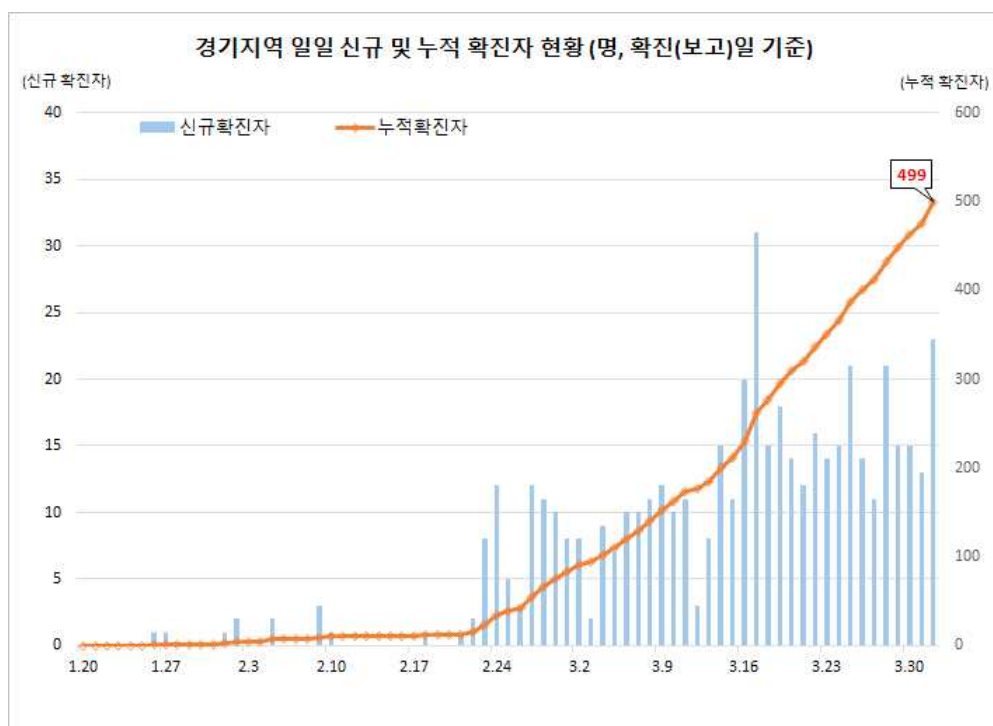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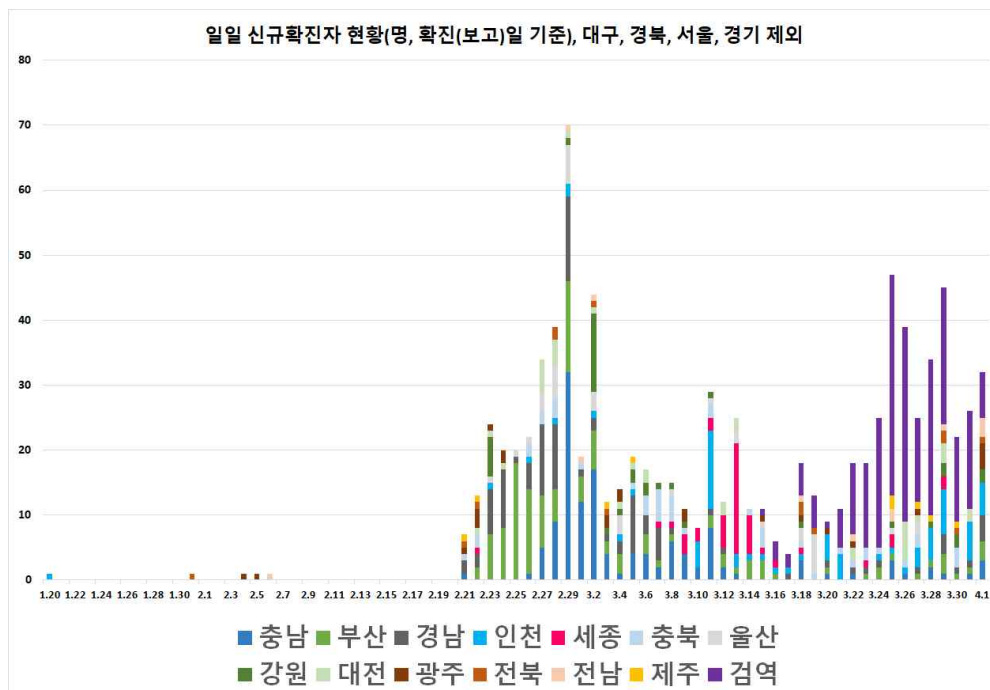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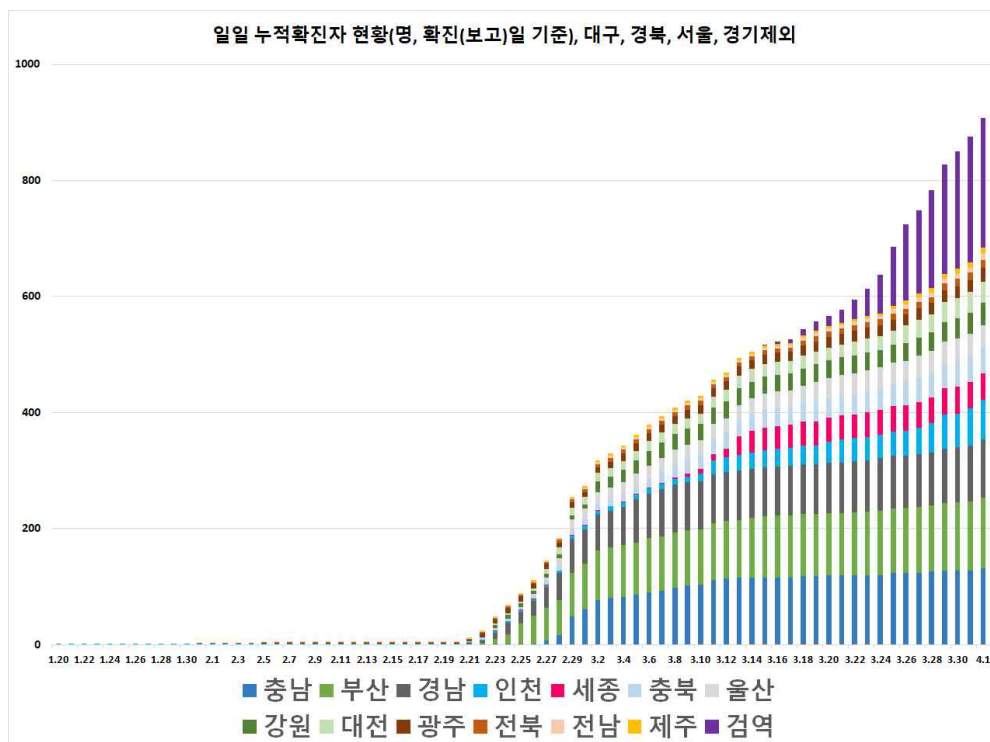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일별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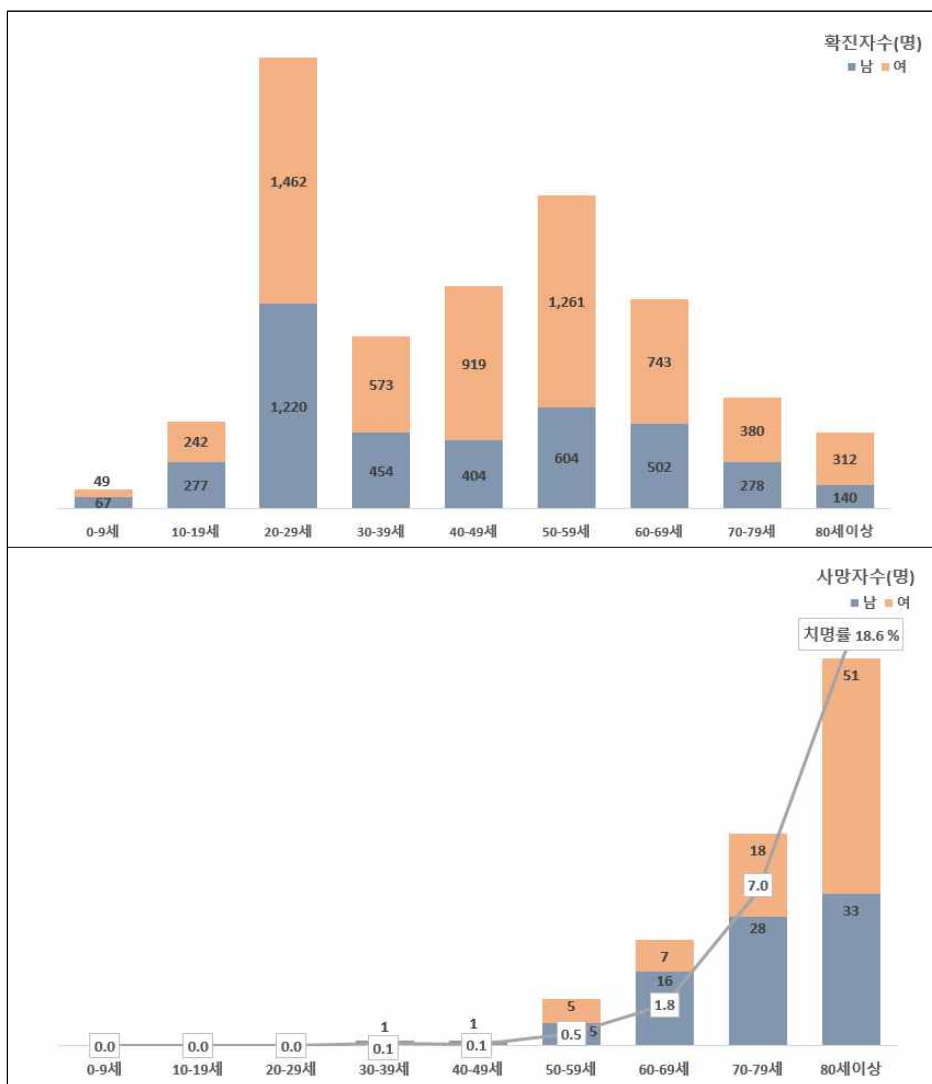


③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4.1일 0시 기준, 9,887명)

(단위 : 명)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9,887 (100)	165 (100)	1.67
성 별	남성	3,946 (39.91)	84 (50.91)	2.13
	여성	5,941 (60.09)	81 (49.09)	1.36
연 령	80세 이상	452 (4.57)	84 (50.91)	18.58
	70-79	658 (6.66)	46 (27.88)	6.99
	60-69	1,245 (12.59)	23 (13.94)	1.85
	50-59	1,865 (18.86)	10 (6.06)	0.54
	40-49	1,323 (13.38)	1 (0.61)	0.08
	30-39	1,027 (10.39)	1 (0.61)	0.10
	20-29	2,682 (27.13)	0 (0.00)	-
	10-19	519 (5.25)	0 (0.00)	-
	0-9	116 (1.17)	0 (0.00)	-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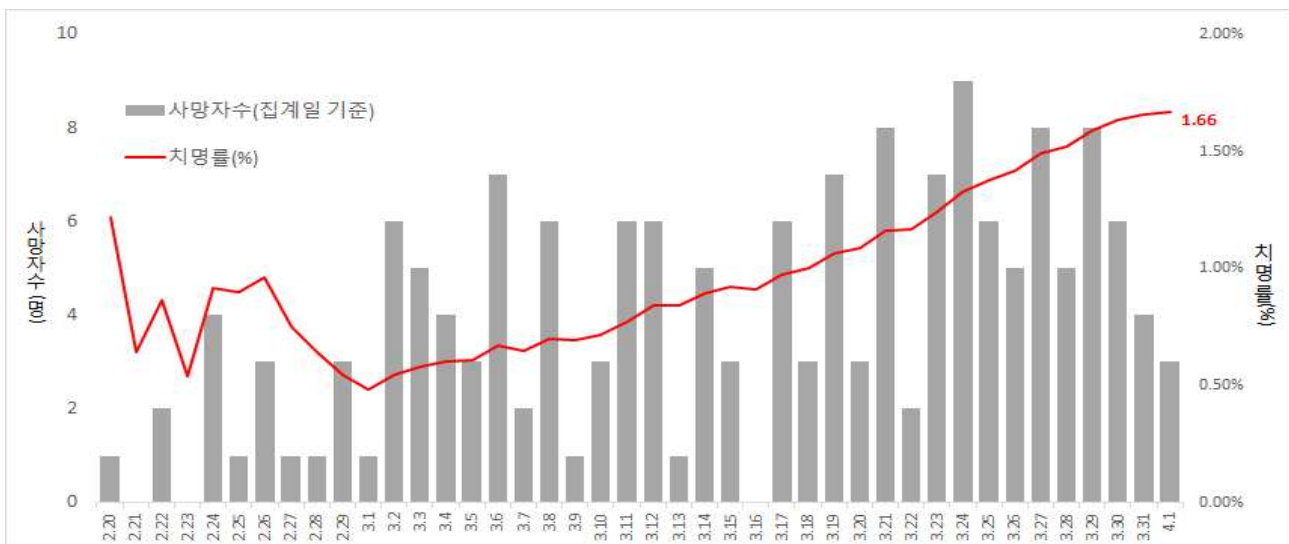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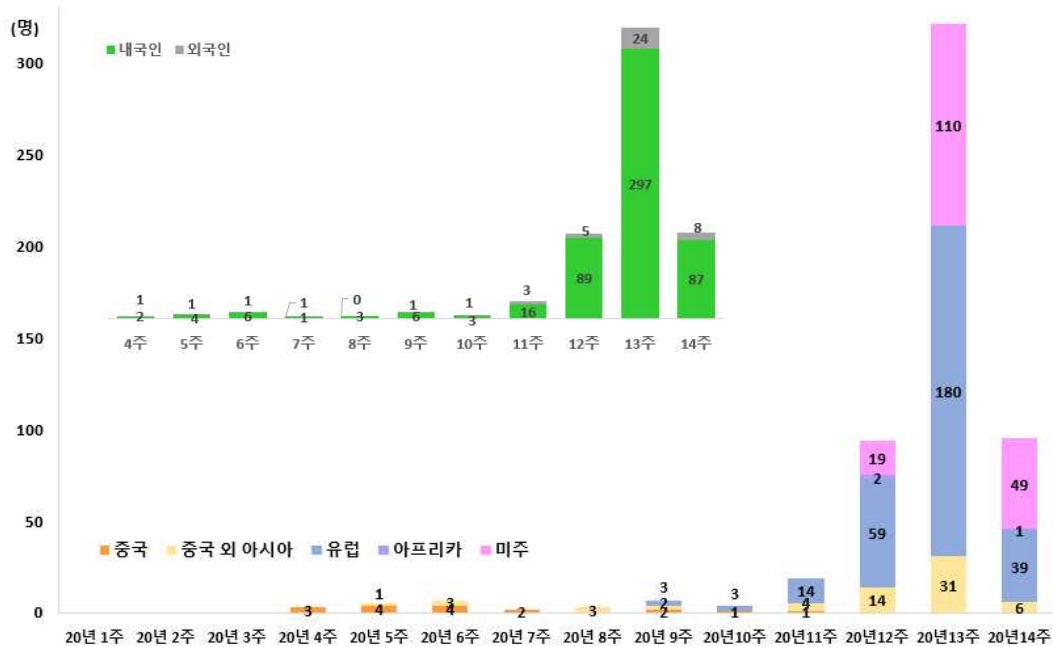
○ 위중·중증환자 현황

구분	계	중증 (%)	위중 (%)
계	76	25 (100.0)	51 (100.0)
80세 이상	18	11 (44.0)	7 (13.7)
70-79세	28	7 (28.0)	21 (41.2)
60-69세	19	4 (16.0)	15 (29.4)
50-59세	8	3 (12.0)	5 (9.8)
40-49세	2	0 (0.0)	2 (3.9)
30-39세	0	0 (0.0)	0 (0.0)
20-29세	1	0 (0.0)	1 (2.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 일별 사망자 현황



4 해외유입 추정 현황



주차	확진자수(명)		여행국
04	중국	3	-
	중국	4	-
05	중국 외 아시아	1	일본
	중국	4	-
06	중국 외 아시아	3	태국, 싱가포르
	중국	2	-
07	중국 외 아시아	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08	중국	2	-
	중국 외 아시아	2	태국, 일본
09	유럽	3	독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1	-
10	유럽	3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중국	1	-
11	중국 외 아시아	4	필리핀, 태국
	유럽	14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체코, 폴란드
12	중국 외 아시아	14	태국, 필리핀, 이란
	유럽	59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 (모로코)
13	아프리카	2	이집트
	미주	19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14	중국 외 아시아	31	필리핀, 태국
	유럽	180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15	미주	110	미국, 콜롬비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국 외 아시아	6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16	유럽	39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1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17	미주	49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주	49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 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 발생 15,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3.26일	3.27일	3.28일	3.29일	3.30일	3.31일	4.1일	누적 사망자수 (치명률 %)
미국	68,285명	83,507명	101,657명	121,117명	139,675명	161,807명	186,265명	3,810명 (2.0%)
이탈리아	74,386명	80,539명	86,498명	92,472명	97,689명	101,739명	105,792명	4,053명 (11.7%)
스페인	47,610명	56,188명	64,059명	72,248명	78,797명	85,159명	94,417명	8,189명 (8.7%)
중국	81,285명	81,340명	81,394명	81,439명	81,470명	81,518명	81,554명	3,312명 (4.1%)
독일	37,323명	43,938명	50,871명	57,695명	62,095명	62,885명	71,690명	774명 (1.1%)
프랑스	25,233명	29,155명	32,964명	37,575명	40,174명	44,550명	52,128명	3,523명 (6.8%)
이란	27,017명	29,406명	32,332명	35,408명	38,309명	41,495명	44,606명	2,898명 (6.5%)
영국	9,529명	10,658명	14,543명	17,089명	19,552명	22,141명	25,150명	1,789명 (7.1%)
스위스	9,765명	10,714명	12,161명	13,213명	14,336명	15,475명	16,176명	373명 (2.3%)
총 국가수	171개국	174개국	174개국	174개국	174개국	174개국	174개국	
총 환자수	445,155명	504,806명	567,766명	636,533명	695,624명	760,352명	832,173명	
총 사망자수	20,484명	23,116명	26,288명	29,827명	33,096명	36,634명	41,112명	

* (출처) 각 국 보건당국, WHO, 美 존스홉킨스大(미국, 독일) 통계 자료

* 국가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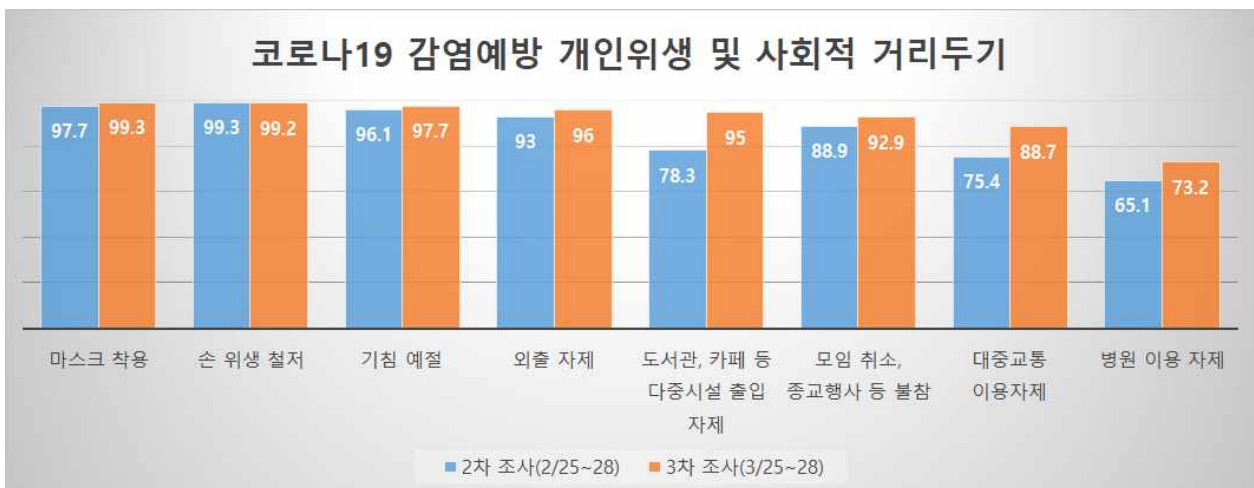
붙임3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조사(3차)

♣ 코로나19 감염 예방행위 실천율

Q. “최근 일주일 동안 다음 행동을 얼마나 실천 했는가?”

- (외출 자제) 가끔/자주/항상 96%, 전혀 하지 않음 4%
- (도서관, 카페 등 다중시설 출입 자제) 가끔/자주/항상 95%, 전혀 하지 않음 5%
- (모임·종교행사 불참) 가끔/자주/항상 92.9%, 전혀 하지 않음 7.1%



♣ 사람 대면접촉 현황

Q.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 대면접촉’이 얼마나 줄었는가?

(완전히 비대면이 됐다 0점 ↔ 사람을 대면하는 수준이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100점)

- 응답자 평균값 40.1점 (평상시 해오던 대면접촉의 40%만 유지)
- 50점 이하 응답자(사람 만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69.9%
- 50점 이상 응답자(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지 않았다) 26.1%

♣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지지

Q. “코로나19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조언을 듣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있다 80.5%, 없다 19.5%

Q.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고립될 때 연락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

- 있다 90.5%, 없다 9.5%

<출처>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3차 조사(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3.25.~28.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

붙임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